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갈등 해결 방식*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School-Aged
Children : Peer Status and Friendship

김 송 이**
Kim, Song Yee
박 경 자***
Park, Kyung Ja

ABSTRACT

Peer conflicts between school-aged children were observed to examine differences i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cording to children's sex, peer status, and friendship. One hundred and forty eight dyads in 4th grade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dyads' interactions in a small room while playing a Domino game were videotaped. Strategies the children used to resolve peer conflicts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and ANOVAs. School-aged children used reasoning and insurances to the partners frequently to resolve conflict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ere different by children's status among peers. Popular children used reasoning and listening more frequently. Rejected children used standing firm, behaving aggressively, ignoring, and withdrawing more frequently, and explaining and listening less frequently. Rejected children, especially rejected boys, used aggressive strategies more frequently.

Key Words : 또래 갈등(peer conflicts), 갈등 해결 방식(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또래 지위(peer status)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27일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E-mail : ssong216@hanmail.net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일반적으로 개인들간에 목표, 의도, 욕구, 혹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갈등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Shantz, 1987). 아동들도 사회적 관계, 예를 들어, 두 아동이 동시에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나 친구간에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갈등의 형태 또한 다양해서 사소한 말다툼처럼 순간적이며 잘 잊혀지는 갈등도 있으나, 개인과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갈등도 있다.

갈등이 아동 발달을 촉진시키는지 혹은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입장이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달 이론가들은 또래 갈등이 조망수용 능력, 정서 조절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정체감의 형성과 사회적 이해의 촉진 등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있어 가치 있는 맥락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Garvey, 1984; Katz, Kramer, & Gottman, 1992; Killen, 1991; Piaget, 1965; Shantz & Hartup, 1992; Siddiqui & Ross, 1999). 이러한 또래 갈등은 아동의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래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잘 해결하여 놀이를 지속시키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동은 또래들에게 거부되거나 따돌림을 받게 되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항상 잠재하고 있어서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종결될 수 있는 반면, 건설적으로 해결된다면 갈등은 친구간에 공통된 근거를 발견하게 하여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Hartup & Laursen, 1993). 이와 같이 아동들의 일상 생활에서 또래

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또래 갈등의 경험이 아동에게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래 갈등은 주로 또래 지위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다.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는 아동은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가 낮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저항보다는 언어적 저항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갈등이 종결되었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이에 반해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는 아동은 또래 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저항과 통제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갈등이 종결된 후에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였다(Dodge, Coie, Pettit, & Price, 1990; Putallaz, Hellstern, Sheppard, Grimes, & Glodis, 1995; Rabiner, Lenhart, & Lochman, 1990; Shantz & Shantz, 1985).

또한 또래 갈등은 두 명의 또래간에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갈등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갈등 발생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Hartup & Laursen, 1993). 특히 친구간의 갈등은 친구가 아닌 단순한 또래와의 갈등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친구 관계가 두 개인이 상호 선택한 자발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특징 지워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친구끼리 보다는 친구가 아닌 또래간에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하며, 친구들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Berndt & Perry, 1986; Hartup, Laursen, Stewart, & Eastenson, 1988; Nelson & Aboud, 1985).

이와 같이 또래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

(Dodge et al., 1990; Hartup et al., 1988; Putallaz et al., 1995)은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른 또래 갈등과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을 독립적으로 연구해 왔으나, 또래 갈등은 또래와의 이원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 지위가 높은 아동은 갈등 상황에서 대부분의 또래에게 효율적인 해결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또래 지위가 낮은 아동은 비효율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친구간에는 주로 효율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 사용되고 친구가 아닌 또래간에는 친구보다는 덜 효율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또래 지위가 낮은 아동은 절친한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동일하게 비효율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효율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래 지위가 높은 아동이 자신과 친한 친구이건 친구가 아닌 또래이건 상관없이 유사한 또래 갈등의 속성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은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행동에는 차이가 나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이다(Hyde, 1986). 공격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에 따른 차이는 또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행동적 반응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동의 성과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한 외국의 연구들은 대체로 남아와 여아간에 또래

갈등의 발생 빈도와 갈등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또래 갈등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며, 갈등이 발생할 때 여아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아는 위협과 힘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Murphy & Eisenberg, 1996; Shantz & Shantz, 1985). 그러나 국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배선영, 2000; 정선영, 2001; 한제인,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 설계를 통해서 성과 또래 지위에서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갈등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는지, 혹은 갈등 해결 방식이 일관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교사들에게 또래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체계적인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이 매 순간 부딪치는 또래 갈등의 경험이 이들에게 더 나은 발달적 기능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령기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갈등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
2. 갈등 해결 방식은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관찰 대상의 선정

관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서 중류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한 곳과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두 학교에서 4학년 13개 학급의 전체 아동 557명에게 또래 지명 검사와 상호적 친구 관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두 명의 동성 또래로 짝지어진 쌍을 선정하였다. 관찰 대상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같은 학급의 동성 또래 명단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긍정적 지명 세 문항과 부정적 지명 세 문항에 해당하는 또래를 답하도록 하였다. 각 학급 내에서 아동의 또래 지위는 긍정적 지명 점수와 부정적 지명 점수, 사회적 선호 점수와 사회적 영향 점수를 이용하여 Coie와 Dodge(1983)의 구분 기준에 따라 인기, 보통, 무시, 거부, 양면성이 있는 아동의 다섯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거부되는 아동과 무시되는 아동이 서로 구분되는 행동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예 : Hopmeyer & Asher, 1997),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 인기 있는 아동과 거부되는 아동이었으므로, 또래 지위의 다섯 집단 중 '인기 있는 아동'과 '거부되는 아동'을 본 연구의 주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쌍을 이루어 놀이를 할 아동으로 '보통 지위의 아동'을 선정하여 또래 지위를 통제하였다.

둘째, 친구 쌍과 급우 쌍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상호적 친구 관계를 조사하였다. 학급 내에서 한 아동이 상호적 친구

관계를 맺은 아동의 수가 평균 세 명이라는 연구 결과(윤미경, 1999; Parker & Asher, 1993)에 근거해서, 아동들에게 학급별 동성 아동의 명단을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친한 친구"를 세 명 지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1차로 선정된 '인기 있는 아동' 또는 '거부되는 아동'과 '보통 지위의 아동'이 서로 친한 친구로 지명한 경우에는 '친구쌍'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또래 지명 검사에서 부정적으로 지명되지 않고, 상호적 친구 관계 질문지에서 상호 친구로도 지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우쌍'으로 아동의 친구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관찰 대상은 남아 73쌍과 여아 75쌍으로 총 148쌍이었다.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남녀별 최종 관찰 대상의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남녀별 최종 관찰 대상의 구성 (N=148쌍)

또래 지위 친구 관계	인기아 / 보통아		거부아 / 보통아	
	친 구	집단 1 < 남아 19쌍 여아 20쌍	집단 3 < 남아 17쌍 여아 19쌍	
급 우	집단 2 < 남아 19쌍 여아 18쌍	집단 4 < 남아 18쌍 여아 18쌍		

2. 관찰 상황 및 범주

1) 관찰 상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성하여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린 아동이 공간과 놀잇감을 공유하는 놀이에서 갈등 지향적인 반면, 학령기 아동은 놀이보다는 조직화된 게임을 하는 동안

더 갈등적이다(Hartup & Laursen, 1993). 그리고 학령기 아동간에는 사물의 소유 뿐 아니라 놀이 규칙, 활동에 대한 간섭,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된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Shantz & Shantz,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녀에 따른 선호도와 선행 경험에서 차이가 없고, 초등학교 4학년 연령의 아동들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갈등 유발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남, 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즐겨 하는 놀이와 어떤 상황에서 친구들과 다투는지를 조사하고, 대형 장난감 판매점에서 놀이감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미노 게임이 아동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도미노 게임은 많은 수의 도미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블록이 실수로 쓰러지기가 쉬우며, 도미노를 모

두 구성한 뒤에 블록을 넘어뜨릴 때 끊어지지 않고 모든 도미노 블록이 잘 쓰러지게 쌓아야 한다는 놀이의 특성상 또래간에 다양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2) 예비 관찰

이와 같이 구성된 관찰 상황이 실제로 아동간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관찰 범주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내의 한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 4쌍(남아 2쌍, 여아 2쌍)을 대상으로 예비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아동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관찰 범주

본 연구에서는 Hartup과 동료들(1988)과 Putallaz

〈표 2〉 갈등 해결 방식의 관찰 범주 및 조작적 정의

갈등 해결 방식의 하위 범주

1. 자기 의견 고수하기 :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추가하지 않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원래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
예> 싫어.
2. 공격적 행동하기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 아동에게 신체적, 언어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 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
3. 무시하기 : 상대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모른 척 하고 자신이 하던 과제를 계속 하는 행동
4. 주의 돌리기 : 자리를 떠나거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서 갈등 주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
예> 아동 1 : 우리 색깔별로 놓자. / 아동 2 : 야, 이 도미노는 이렇게 놔야지.
5. 제3자 도움 요청하기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이나 다른 또래에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나 행동
예> 아동 1 : 선생님, 이거 이렇게 놓는 거 맞죠?
6. 이유 설명하기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유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말이나 행동
예> 이전 계단을 사용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
7. 대안 제시 및 타협하기 :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말이나 행동
예> 그럼, 가위 바위 보로 정하자.
8. 양보하기 : 자신의 의견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상대 아동의 의견에 따르는 말이나 행동
9. 경청하기 : 상대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이 하던 과제를 그만두고 경청하지만 양보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뚜렷한 반응이 동반되지 않는 행동
예> 아동 1 : 그럼, 올챙이로 하자. / 아동 2 : (도미노 쌓던 것을 멈추고 올챙이 도안을 쳐다본다)

와 동료들(1995)의 관찰 범주를 기초로 하여, 예비 관찰 결과를 통해 수정 보완한 범주를 사용하여 또래갈등을 관찰하였다. 갈등 해결 방식은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갈등에 참여한 두 아동이 사용한 전략들로, 자기 의견 고수하기, 공격적 행동하기, 무시하기, 주의 돌리기, 제3자 도움 요청하기, 이유 설명하기, 대안 제시 및 타협하기, 양보하기와 본 연구에서 추가한 경청하기의 아홉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갈등 해결 방식의 하위 범주 및 조작성 정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본 관찰

본 관찰은 2000년 10월 9일에서 11월 29일에 걸쳐 서울과 일산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의 교사 연구실과 과학실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실에는 하나의 책상에 의자를 두 개씩 놓은 책상 세트를 세 개 배치하고, 각 책상은 이동식 칠판으로 분리하였다. 책상 위에는 도미노 게임에 필요한 놀잇감과 네 가지 도안이 그려진 질문지를 미리 배치해 두고, 벽에 각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녹화할 비디오 카메라 세 대를 장치해 놓았다.

실험자는 실험실에 온 아동들에게 도미노 게임에 대해서 설명한 후, 도미노를 구성할 때 알아두어야 할 Y자와 T자와 같은 간단한 모형을 함께 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아동들을 미리 쌍으로 정해진 두 명씩 짝지어서 각 책상에 앉게 한 다음, 아동들에게 도미노 블록으로 구성해야 하는 네 가지 도안이 그려진 질문지를 제시하고, 두 아동이 상의하여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도안을 하나 정해서 도안대로 도미노 블록을 세우게 하였다. 설명을 마친 후, 실험자는 아동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

것과 다른 책상의 아이들과 이야기하지 말 것을 약속하고 실험실을 나갔다. 관찰 시간은 실험자가 “이제 시작하세요”라고 말한 시점부터 도미노가 다 완성된 시간까지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관찰 대상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관찰 단위를 이루는 또래 쌍마다 도미노 구성을 완성한 시간이 다양했기 때문에 관찰 시간도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관찰 시간은 최소 8분 51초에서 최대 45분 37초였으며, 평균 관찰 시간은 23분 18초였다¹⁾.

4. 자료 분석

1) 또래 갈등 에피소드의 선정

녹화된 내용 중에서 분석 단위가 되는 또래 갈등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갈등 에피소드는 ‘아동 A가 아동 B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시도하고, 아동 B가 이에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갈등 에피소드의 종결 시점은 Eisenberg와 Garvey(1981)의 기준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 반대 행동이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갈등이 분명하게 해결되었을 때, 또는 다른 활동을 위해서 분쟁을 분명하게 포기하였을 때, 혹은 협상이나 반대와 같은 행위가 20초 동안 없거나 활동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로 보았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연구 대상인 148쌍의 상호작용에서 또래 갈등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세 쌍의 아동들에게는 갈등 에피소드가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145쌍

1) 관찰 시간이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서 총 847건의 또래 갈등 에피소드가 관찰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또래 갈등 에피소드는 갈등이 시작되기 20초 전에서 갈등 종결 20초 후 까지 갈등 에피소드에서 보여진 행동과 언어를 전사하였다.

2) 부호화 과정

또래 갈등 에피소드를 전사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사례별로 관찰 범주에 따라 부호화 하였다. 갈등 해결 방식은 초점 아동과 상대 아동으로 구분하여 사건 표집법에 따라 하위 항목별로 발생 빈도를 산출하였다. 녹화된 두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또래 갈등에 대한 부호화의 신뢰도는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1명간의 관찰자간 일치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두 명의 관찰자간에 92.7%의

일치도를 보였다. 관찰자간에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행동이나 진술에 대해서는 녹화된 자료를 근거로 합의 과정을 거쳤다.

3) 통계적 분석

또래 갈등 상황에서 두 아동이 사용한 갈등 해결 방식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사용한 갈등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의 비율 점수를 성(2), 또래 지위(2), 친구 관계(2)에 따라 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갈등 해결 방식의 항목별 비율 점수는 각 아동이 사용한 갈등 해결 방식의 총 빈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후 분석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갈등 해결 방식의 전반적인 양상

갈등 에피소드에서 관찰의 초점 아동이 사용한 갈등 해결 방식은 모두 1,322건이었다. 갈등 상황에서 초점 아동이 사용한 갈등 해결 방식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들은 또래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 설명하기’ 방식을 가장 많이 (46.8%) 사용하였다. 이유 설명하기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표 3> 갈등 에피소드에서 사용된 갈등 해결 방식의 하위 항목별 빈도

항 목	빈 도 (%)
이유 설명하기	618 (46.8)
자기 의견 고수하기	299 (22.6)
대안 제시 및 타협하기	118 (8.9)
양보하기	102 (7.7)
공격적 행동하기	53 (4.0)
무시하기	52 (3.9)
경청하기	32 (2.4)
주의 돌리기	31 (2.3)
제3자 도움 요청하기	17 (1.3)
전 체	1,322 (100.0)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도미노를 놓는 방식에 대해서 아동들이 도안을 지적하며 상대 아동에게 설명을 하거나, 책상 위에 손을

2) 또래 갈등의 쟁점과 갈등의 결과, 갈등 상황에서의 정서 등 또래 갈등의 전체 과정에 대한 관찰 범주와 부호화, 연구 결과는 김송이(2001)를 참조할 것.

로 모양을 그리거나, 시범 삼아 다른 곳에도 미노 몇 개를 쌓은 뒤 넘어뜨려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행동들이 관찰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갈등 해결 방식은 ‘자기 의견 고수하기’였다(22.6%). 자기 의견 고수하기는 갈등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추가하지 않고 같은 말만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주로 단순히 언어적으로 반대한 경우(예: “이거 하자”, “아니야”)가 많았으나, 아무 말 없이 도미노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고집한 경우도 있었다.

서로의 주장이 상이할 때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 및 타협하기’는 전체 갈등 에피소드 중 8.9%를 차지하였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의 의견을 따르자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등의 행동들이 여기에 속하였다. 그리고 도미노를 좀 더 길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 아동이 반대할 때, ‘그러면 도미노 블록을 한 개만 더 놓자’고 수정안을 내놓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양보하기’는 주로 도안 결과도 도미노 무너뜨릴 아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7.7%). ‘공격적 행동하기’는 관찰된 갈등 해결 방식의 4.0%를 차지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상대를 때리거나 치는 등의 신체적인 공격 행위보다는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 행위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상대를 위협하는 식의 동작(예: 상대를 찌려보며 주먹 쥐기), 도미노를 집어던지거나 상대가 놓고 있는 도미노 블록 뺏기, 일부러 책상 흔들기와 같은 행동 등도 나타났다. 상대 아동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하던 것을 계속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무시하기’(3.9%)와 이와 유사하긴

하지만 관련된 사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과제를 멈추고 상대의 의견에 대해 관심을 계속 표명하는 ‘경청하기’도 관찰되었다(2.4%). 또한 ‘주의 돌리기’(2.3%)는 그 자리를 떠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동으로, 의자에서 일어나서 실험실을 배회하거나 의자를 책상에서 멀리 떨어지게 위치한 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기, 그리고 갈등 사안과 관련이 없는 다른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의 행동들이었다. ‘제3자 도움 요청하기’는 갈등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님에게서 구한다든지, 주변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아동에게 현재 갈등 사안에 대해 물어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1.3%).

2.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차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초점 아동이 사용한 갈등 해결 방식이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항목별 발생 비율을 산출하고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격적 행동하기’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F_{1,137}=5.31, p<.05$). 남아와 여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아($M=.05$)가 여아($M=.01$)보다 언어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상대 아동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해결 방식 중 ‘이유 설명하기’($F_{1,137}=10.07, p<.01$), ‘자기 의견 고수하기’($F_{1,137}=5.88, p<.05$), ‘공격적 행동하기’($F_{1,137}=10.96, p<.001$), ‘무시하기’($F_{1,137}=17.02, p<.001$), ‘경청하기’($F_{1,137}=5.30, p<.05$), ‘주의 돌리기’($F_{1,137}=4.27, p<.05$)에서 또래 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

〈표 4〉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갈등 해결 방식

친구 관계 성	친 구			급 우			전 체		
	남 (n=36)	여 (n=37)	전체 (n=73)	남 (n=36)	여 (n=36)	전체 (n=72)	남 (n=72)	여 (n=73)	전체 (N=145)
인 기 아 (n=73)									
이유 설명하기	.51(.19) [*]	.49(.15)	.50(.17)	.54(.20)	.51(.31)	.53(.26)	.53(.19)	.50(.24)	.51(.22) ^b
자기 의견 고수하기	.17(.17)	.21(.19)	.19(.18)	.21(.19)	.15(.24)	.18(.22)	.19(.18)	.18(.21)	.18(.19) ^b
대안제시/타협하기	.16(.13)	.09(.11)	.13(.13)	.07(.09)	.11(.13)	.09(.11)	.12(.12)	.10(.12)	.11(.12)
양보하기	.09(.11)	.13(.16)	.11(.13)	.13(.15)	.11(.13)	.12(.14)	.11(.13)	.12(.14)	.11(.14)
공격적 행동하기	.01(.05)	.00(.00)	.01(.03)	.00(.00)	.01(.03)	.00(.02)	.01(.03)	.00(.02)	.01(.03) ^{abd}
무시하기	.01(.05)	.01(.06)	.01(.05)	.01(.03)	.01(.05)	.01(.04)	.01(.04)	.01(.05)	.01(.05) ^b
경청하기	.03(.09)	.06(.16)	.04(.13)	.03(.07)	.08(.14)	.06(.11)	.03(.08)	.07(.15)	.05(.12) ^b
주의 돌리기	.00(.00)	.01(.03)	.01(.02)	.02(.05)	.01(.03)	.02(.04)	.01(.03)	.01(.03)	.01(.03) ^b
제3자 도움요청하기	.01(.06)	.00(.01)	.01(.04)	.00(.00)	.00(.01)	.00(.01)	.01(.04)	.00(.01)	.00(.03)
거 부 아 (n=72)									
이유 설명하기	.33(.21)	.46(.19)	.40(.21)	.38(.22)	.41(.28)	.40(.25)	.36(.21)	.44(.24)	.40(.23)
자기 의견 고수하기	.24(.18)	.22(.13)	.23(.15)	.33(.16)	.24(.17)	.28(.17)	.28(.17)	.23(.15)	.26(.16)
대안제시/타협하기	.08(.11)	.09(.16)	.09(.14)	.06(.09)	.08(.11)	.07(.10)	.07(.10)	.09(.14)	.08(.12)
양보하기	.12(.24)	.11(.13)	.12(.19)	.06(.11)	.08(.24)	.07(.18)	.09(.18)	.09(.19)	.09(.18)
공격적 행동하기	.12(.24)	.02(.06)	.07(.17)	.06(.09)	.03(.06)	.04(.08)	.09(.18)	.02(.06)	.06(.14)
무시하기	.06(.08)	.05(.08)	.05(.08)	.05(.13)	.12(.14)	.09(.14)	.06(.11)	.08(.12)	.07(.11)
경청하기	.01(.03)	.01(.03)	.01(.03)	.01(.03)	.02(.05)	.01(.04)	.01(.03)	.01(.04)	.01(.03)
주의 돌리기	.03(.06)	.02(.05)	.03(.05)	.04(.09)	.02(.04)	.03(.07)	.03(.07)	.02(.05)	.03(.06)
제3자 도움요청하기	.01(.02)	.02(.05)	.01(.03)	.01(.03)	.01(.03)	.01(.03)	.01(.03)	.02(.04)	.01(.03)
전 체 (N=145)									
이유 설명하기	.42(.21)	.47(.17)	.45(.19)	.46(.22)	.46(.30)	.46(.26)	.44(.22)	.47(.24)	.46(.23)
자기 의견 고수하기	.20(.17)	.22(.16)	.21(.16)	.27(.18)	.19(.21)	.23(.20)	.23(.18)	.21(.18)	.22(.18)
대안제시/타협하기	.13(.13)	.09(.14)	.11(.13)	.06(.09)	.09(.12)	.08(.11)	.09(.11)	.09(.13)	.09(.12)
양보하기	.10(.18)	.12(.14)	.11(.16)	.09(.13)	.09(.19)	.09(.16)	.10(.16)	.11(.17)	.10(.16)
공격적 행동하기	.07(.17)	.01(.04)	.04(.13)	.03(.07)	.02(.05)	.02(.06)	.05(.13)	.01(.05)	.03(.10)
무시하기	.03(.07)	.03(.07)	.03(.07)	.03(.10)	.07(.12)	.05(.11)	.03(.08)	.05(.10)	.04(.09)
경청하기	.02(.07)	.03(.11)	.03(.09)	.02(.06)	.05(.11)	.03(.09)	.02(.06)	.04(.11)	.03(.09)
주의 돌리기	.01(.04)	.02(.04)	.02(.04)	.03(.07)	.02(.04)	.02(.06)	.02(.06)	.02(.04)	.02(.05)
제3자 도움요청하기	.01(.04)	.01(.03)	.01(.04)	.01(.02)	.01(.02)	.01(.02)	.01(.03)	.01(.03)	.01(.03)

* ()안은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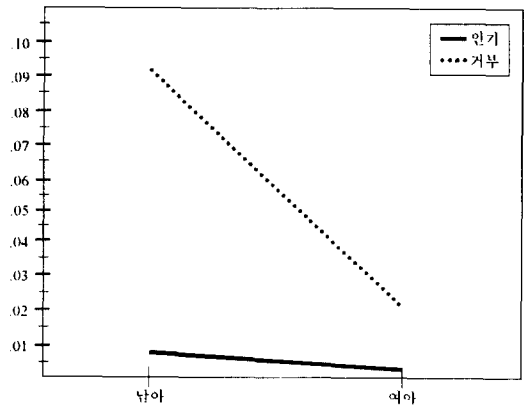
a. 성에 따른 주효과임. b. 또래 지위에 따른 주효과임. d. 성과 또래 지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임.

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거부아는 인기가 보다 자기 의견 고수하기, 공격적인 행동하기, 무시하기, 주의 돌리기를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인기아는 이유 설명하기와 상대 아동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경청하기 행동을

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표 4> 참조).

갈등 해결 방식 중 '공격적 행동하기'(F_{1,137} = 4.24, p<.05)에서 성과 또래 지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공격적 행동하기'에서 나타난 아동의 성과 또래 지위간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거부아가 인기아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사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서 거부된 남아($M=.09$)가 거부된 여아($M=.02$), 인기 있는 남아($M=.01$), 그리고 인기 있는 여아($M=.00$)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t -검증한 결과, 남아의 경우에서만 거부된 아동이 인기 있는 아동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t_{70}=-2.80, p<.01$).



<그림 1> 공격적 행동하기에서 성과 또래 지위간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또래 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갈등 해결 방식에서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은 또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식을 사용했지만,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이유 설명하거나 대안 제시 및 타협하기, 양보하기 등의 건설적인 해결 방식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갈등에 관한 엄정례의 연구(1998)에서 4, 5세 아동들이 이유 설명하기보다는 고집하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인 학령기 아동들이 학령전 아동에 비해서 전반적인 발달, 특히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이 더 많이 발달했기 때

문일 수 있다. Selman(1981)의 대인간 유능성 발달 모델에 따르면, 1수준에 속하는 4, 5세 아동들은 갈등 상황에서 주로 일방적인 명령을 사용하고 타인을 종속시키려 하며,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이 속하는 2수준과 3수준의 아동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바람을 조절하려 하며, 타인의 의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기 시작하고, 적극적인 대인간 의사소통과 공유하기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둘째, 학령전기에 비해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이 더 발달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더 많이 제공했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구조화된 상황이 또래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 아동들이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만 하도록 제약을 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는 아동들이 성인에게서 부여받은 활동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고, 따라서 개방된 상황에서의 활동보다 다른 관점을 탐색하고, 여러 대안들간에 선택을 하고, 해결책을 협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한 Hartup과

Laursen(1993)의 주장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해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동들간에 발생한 갈등의 쟁점이 주로 사실이나 의견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당사자들간에 논쟁이 주를 이루므로, 힘으로 상대를 정복하기가 힘들고, 두 아동이 공통된 입장에 도달해야 도미노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유 설명하기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아동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상대를 치거나 도미노를 집어던지고, 상대의 도미노를 뺏는 등의 신체적인 공격 행동도 일부 보였지만, 주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식의 언어적인 공격을 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공격성은 점차 줄어들고 언어적 공격성이 증가하며, 특히 학령기가 되면 아동들은 또래간 분쟁을 더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신체적 공격성이 줄어들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Tremblay, Boulerice, Harden, McDuff, Perusse, Pihl, & Zoccolillo, 1996)와 일관된다. 그러나 아동들이 사용한 전체 갈등 해결 방식 중에서 공격적인 행동 전략의 사용 비율은 4%로써 공격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흔히 여러 문헌에서 갈등을 '싸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용어와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갈등이 실제로 공격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과 공격성이 각기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Shantz, 1987)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해준다 하겠다.

다음으로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라 아동들이 사용한 갈등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

등 해결 방식 중 이유 설명하기, 자기 의견 고수하기, 공격적 행동하기, 무시하기, 경청하기, 주의 돌리기에서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또래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부아는 단순하게 자기 주장을 계속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갈등 쟁점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며,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기아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상대 아동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잠시 곰곰이 생각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선행 연구들(Putallaz et al., 1995; Rabiner et al., 1990)은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는 아동은 또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통제 전략과 비언어적인 저항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는 아동은 기술적인 언어적 저항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거부아보다 인기아보다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기아가 이유를 설명하거나 상대 아동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등 또래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행동과,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은 인기 있는 아동이 기술적인 언어적 저항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Putallaz와 동료들(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인기 있는 아동은 상대 아동의 관심을 더 고려하는 행동을 하고, 거부된 아동은 상대 아동 보다는 자신에게 지향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조망

수용의 개념과 연결 지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인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은 친 사회적인 행동의 신뢰로운 예측 요인이며(Underwood & Moore, 1982), Kurdek과 Krile(1982)은 또래로부터 인기 있는 초등학교 3~8학년 아동들이 조망수용 기술이 잘 발달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할수용 기술을 훈련받은 아동과 청소년은 훈련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더 협력적이고 관대하며, 타인의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Chalmers & Townsend, 1990).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래로부터 인기 있는 아동은 거부되는 아동보다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이 더 발달하였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로, 공격적 행동에서 성과 또래 지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전반적으로 거부된 아동이 인기 있는 아동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거부 남아가 거부 여아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래 갈등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성과 또래 지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드물지만 Crick과 Ladd(1990)는 가상적인 또래 갈등 상황에서 여아들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전략이 인기아 및 나이든 아동과 유사하며, 남아는 거부아 및 어린 아동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인기 있는 아동과 여아들이 특히 거부된 남아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숙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또래 갈등을 아동의 성에 따라서만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

서도 갈등 해결 방식 중 공격적인 행동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들(Chung & Asher, 1996; Maccoby & Jacklin, 198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인기 있는 여아와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남아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어떤 집단보다 거부된 남아가 특히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이라는 결과는 남아의 일반적 특성이라기보다 거부된 남아의 특성과 관련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아동은 거부된 아동보다 공유하거나 차례 바꾸기를 포함하는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며,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예의 바른 요청하기, 공유하기, 차례 바꾸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Chung & Asher, 1996; Hopmeyer & Asher, 1997). 또한 급우와의 갈등과 비교해서 친구와의 갈등에서는 협상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Laursen, 199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안 제시하기 및 타협하거나 양보하기와 같은 친사회적인 특성과 관련된 갈등 해결 방식에서는 성, 또래 지위, 친구 관계에 따른 어떠한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행동이 유능한 갈등 해결 행동인지에 대한 Putallaz와 Sheppard(1992)의 주장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Putallaz와 Sheppard(1992)는 효과적이고 유능한 갈등 행동은 갈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절한 기준을 인식하고, 다른 아동의 관심과 동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은 공통된다고 하였다. 즉, 모든 갈등 상황에서 친

사회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행동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유능한 갈등 해결 행동이라는 것이다. 본 관찰 상황에서 도미노를 제대로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미노를 놓는 방식에 대해서 또래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 아동에게 양보를 한다면 도미노를 빨리 완성하지도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찰 과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인기아나 여아가 거부아나 남아보다 친사회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거부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들에게 친사회적인 행동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유능한지를 알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지위 및 친구 관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또래 갈등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에서 또래 지위와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친구 관계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친구 관계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배선영(2000)과 윤미경(1999)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친구쌍마다 친구 관계의 질이 차이가 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 과제가 아동들에게 많이 도전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친구 관계에 따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또래 갈등 상황에서 아동들의 행동적 반응은 아동의 관계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보다는 사회적 기술이나 생물학적 경향성, 혹

은 사회화의 결과로 습득된 아동들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또래 지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더 많은 탐색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친구 관계와 또래 지위, 그리고 성을 함께 고려해서 연구함으로써 또래 갈등과 관련된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공격적인 행동 전략에서 나타난 성과 또래 지위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단순히 남아와 여아간에 또래 갈등에서의 차이, 또래 지위에 따른 또래 갈등에서의 차이, 그리고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에서의 차이만을 검증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또래 갈등을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와 같은 관계 맥락에서 연구할 때 성차를 같이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그 동안 또래 갈등은 연구 방법상의 용이함 때문에 주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면접이나 갈등 해결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이 가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략과 실제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들이 사용한 해결 전략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찰을 통해서 또래 갈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녹화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아동들이 실제 또래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밀히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특히 거부-남아 집

단에서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부정적인 갈등 행동 특성들이 나타났다. 거부-남아가 또래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실제로 이러한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유능한 아동들이 또래 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제공하여 갈등 상황에서의 유능한 행동에 대한 기준도 같이 마련함으로써 거부아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실 상황에서 또래 갈등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또래 갈등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도미노 게임을 하는 상황에만 국한하여 관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 상황의 특수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갈등이 도전적이어야 아동들간의(인기아-거부아, 친구-급우) 전형적인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 아동들에게 제시한 과제는 아동들에게 있어 심각한 도전은 아니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실 관찰의 제한점을 유념해서 해석해야 하며, 자연 관찰법을 통한 자료의 보완과 비교 작업이 요구된다. 나아가 실험실 관찰법을 사용하여 또래 갈등을 연구할 때에는 아동들에게 좀 더 정교화되고 심화된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집단간의 차이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친구 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 아동들이 같은 친구 관계의 범위에 축소됨으로써 친구쌍 집단에 속한 아동들간에 변이가 증가되었을 수 있다. 갈등 해결 방

식 등은 아동의 친구 관계의 질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예 : Hartup et al., 198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친구 관계의 질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또래 갈등과 관련된 변인으로 주로 관계 차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 밖에도 사회 정보처리 능력이나 정서조절 능력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이 또래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또래 갈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달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더 다양한 아동 표본에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연령을 대상으로 발달적 경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들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등의 건설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갈등 해결 방식은 친구 관계보다는 또래 지위와 더 많은 관련이 있어,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상대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타인 지향적인 해결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거부되는 아동은 자기 주장을 계속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자기 지향적인 해결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거부된 남아는 다른 집단에 비해 공격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참 고 문 헌

- 김송이 (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 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선영 (2000).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엄정례 (1998). 유아의 또래간 갈등상황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경 (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영 (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제인 (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Chalmers, J. B., & Townsend, M. A. R. (1990). The effects of training in social perspective taking on socially maladjusted girls. *Child Development*, 61, 178-190.
- Chung, T.,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rick, N. R., & Ladd, G. W.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 Do the ends justify being mea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12-620.
- Dodge, K. A., Coie, J. D., Pettit, G. S., & Price, J. M. (1990). Peer status and aggression in boy groups :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1, 1289-1309.
-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Garvey, C. (1984). *Children's talk*.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tup, W. W., & Laursen, B. (1993). Conflict and context in peer relations. In C. Hart(Ed.), *Children on playgrounds :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pp. 44-84). Ithaca : SUNY Press.
- Hartup, W. W.,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1600.
- Hopmeyer, A., & Asher, S. (1997). Children's responses to peer conflicts involving a rights inf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3, 235-254.
- Hyde, J. S. (1986).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J. S. Hyde & M. C. Linn(Eds.), *The psychology of gender :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Baltimore, MD :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 U. Shantz & W. W.

-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122-149).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llen, M. (1991).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115-13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 Laursen, B. (1993). Conflict management among close friends. In B. Laursen(Ed.),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 :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SF : Jossey-Bass.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urphy, B. C., & Eisenberg, N. (1996). Provoked by a peer :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42*, 103-124.
- Nelson, J., & Aboud, F. E. (1985).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between friends. *Child Development, 56*, 1009-1017.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Y : Free Press.
- Putallaz, M., Hellstern, L., Sheppard, B. H., Grimes, C. L., & Glodis, K. A. (1995). Conflict,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 Maternal and peer contex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 (4), 433-448.
-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330-355). NY : Cambridge University.
- Rabiner, D. L., Lenhart, L., & Lochman, J. E. (1990). Automatic versus reflective social problem solving in relation to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010- 1016.
- Selman, R. L. (1981).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 The role of understanding in conduct. *Developmental Review, 1*, 401-422.
- Shantz, C. U. (1987). Conflict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305.
- Shantz, C. U., & Hartup, W. W. (1992). Conflict and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1-11). NY : Cambridge University.
- Shantz, C. U., & Shantz, D. W. (1985). Conflict between children : Social-cognitive and socio-metric correlates. In M. W. Berkowitz(Ed.), *Peer conflict and psychological growth :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pp. 3-21). SF : Jossey-Bass.
- Siddiqui, A. A., & Ross, H. S. (1999). How do sibling conflicts end?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3), 315-332.
- Tremblay, R. E., Boulerice, B., Harden, P. W., McDuff, P., Perusse, D., Pihl, R. O., & Zoccolillo, M. (1996). Do children in Canada become more aggressive as they approach adolescence?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Statistics Canada(Eds.), *Growing up in Canada :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pp. 127-137). Ontario, Canada : Statistics Canada.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